

무안군, 도자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젠걸음'



무안군이 지난 2일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논의했다. (무안군 제공)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 '무안행도 프로젝트' 추진 해외 적극 마케팅·일자리 창출 도모 등 경제 활성화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인 무안군이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무안행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행도'는 무안군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자기라는 뜻으로 무안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무안 도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의미한다. 무안군은 지난 2일 도자문화·산업 융

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 박성배 산업건설위원장, 도자기 관련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 의견을 개

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받은 무안 도자복합 산업특구 계획인 무안도자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비전 및 세부단위사업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연차별·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산출 ▲경제성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집적화된 도자산업 자원 활용과 특화산업에 의한 도자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은 청계농공단지를 중심으로 67개 업체가 집적화된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라며 "생산 주문 방식을 뛰어넘어 명품 브랜드 개발과 해외 마케팅에 적극 투자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1월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계농공단지 일원인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됨에 따라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영암에선 누구나 무료로 버스타세요"

콜버스 이어 두 번째 대중교통 혁신...군내버스 전체 실시

영암군이 이달부터 '누구나 무료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민 이동권 확대,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이번 정책은 '부르면 달려가는' 콜버스 도입에 이은 영암군의 두 번째 대중교통 혁신이다. 앞으로 영암군내버스는 나이·성별·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소 교통카드 발급과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들도 교통카드 없이 편하게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암군내버스 무료 정책은 삼호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콜버스를 포함해 7개 노선 30대 군내버스 전체에서 실시된다. 목포시내버스, 해남군내버스 등

가까운 시·군버스와 고속버스는 이번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과 의원, 운수사 대표이사 등은 누구나 무료버스 시승식을 갖고, 정책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진)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민이 편하고,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도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영암군의 대중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BIS 재구조, 브랜드화 등 앞으로 이어질 다른 대중교통 정책들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영암군 누구나 무료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암군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011-470-2367)에서 한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청년 대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리 안정 테라피도...20일까지 웰니스 체험 참여 모집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4일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진행 중인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9월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목포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6회 계획·운영 중이다. 앞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진행된 웰니스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인 아로마 테라피와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필라테스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에서 진행된 웰니스 프로그램은 명상, 풀, 머드 테라피, 해수 미스트 등 5가지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해양 치유의 효과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다.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고흥주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남은 3회의 프로그램도 웰니스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년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명품 해남배추, 정식 한창... "황토 들녘마다 분주"

해풍 맞아 미네랄 등 영양 풍부 단단하게 딱 아삭한 식감 특징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 해남군에서 황토 들녘마다 명품 해남배추 정식이 한창이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9월 초 정식하는 가을배추는 10월 말부터 수확하는 김장배추다. 겨울배추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고, 겨울철 월동 후 12월부터 수확한다. 해남군은 올해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총 4천300여ha 면적의 가을·겨울 배추를 재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배추작목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도 341ha 가량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배추는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고, 단단하고 딱차게 여운 노란 속이 특징이다.



해남군의 배추 주산지인 산이면 들녘 일원 '강병일 농가'에서 배추 심기에 한창인 농민들 모습. (해남군 제공)

김치를 담가도 아삭하고 단단하는 식감이 오랫동안 유지돼 김장김치에 최적화된 '명품 배추'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해남겨울배추는 지난 2006년 국립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표시 등록 제11호로 지정 돼 차별성을 입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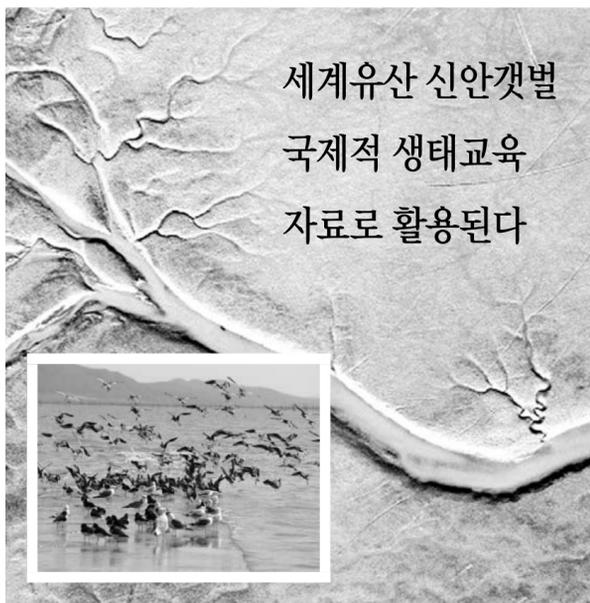
다. 김장배추 수확은 10월말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진다. /해남=박필용기자

"촘촘하고 두텁게" 강진군, 중위소득 복지 확대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기준 확대...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강진군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며 높아질 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천원에서 2025년 76만5천원으로 최대 7.3% 월 5만2천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은 2024년 188만4천원에서 2025년 195만 1천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천원이 인

상된다. 또한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는 2천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강진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 전경과 신안갯벌에 날아든 철새(작은 사진) 모습. (신안군 제공)

세계유산 신안갯벌 국제적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해수부·영국조류보호협,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 진행

신안군은 4일 "신안갯벌이 해양수산부와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의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실습지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전문가인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를 초청해 바닷새 서식지 복원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전 세계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수문학적 연안 퇴적체와 높은 종 다양성을 가진 생태계, 전 지구적인

이동을 하는 철새의 부양에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 철새심포지움에 참석해 신안갯벌을 둘러봤다"며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바닷새에 대한 인상 깊은 기억으로 신안갯벌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갯벌은 수십년에 걸친 꾸준한 보호관리와 복원을 통해 갯벌유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살아있는 생태교과서인 신안갯벌을 전 세계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음식점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 적용 대상지 확대...내달까지 사용 가능

완도군은 4일 "해양치유센터 관외 이용객에게 음식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완도읍을 포함한 군외 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의 음식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확대는 해양치유센터 이용객들이 센터와 가까운 지역에서 완도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쿠폰은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은 지난 7월13일부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군민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1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차로 진행했다. 이벤트는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점에는 손님이 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1차 이벤트 기간 동안 쿠폰을 배부받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전남과 광주 1천209명(60%), 서울 208명(10%), 경기 195명(9%), 이 밖에도 강원도와 제주 등 전 지역에서 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완도군은 현재까지 회수된 95개의 쿠폰 비용을 음식점에 지급할 계획이며, 1차로 제공했던 쿠폰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완도=윤보현기자